

2020
December

한림원의
목소리
제87호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극복을 위한 **대학**의 혁신방안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기능과 자본, 인구 등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은 불균형을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절대적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지역의 경쟁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소재 대학은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연계되어 지역의 주도적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은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수도권에 경제, 사회, 문화 자본이 집중되고, 더 나은 기회가 제공되는 데에 비해 지역은 정주여건이 빈약하고 풍족한 삶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대학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과거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가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이 부족했다는 점을 교훈삼아 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이 수행해 가야 할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며,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역 균형발전의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는 지역소재 대학을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의 문제를 지방대학 활성화와 학·연·산 간의 협력 등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토론회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지방의 젊은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원인을 진단하고, 대학중심의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대학 간의 플랫폼 구축방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0. 1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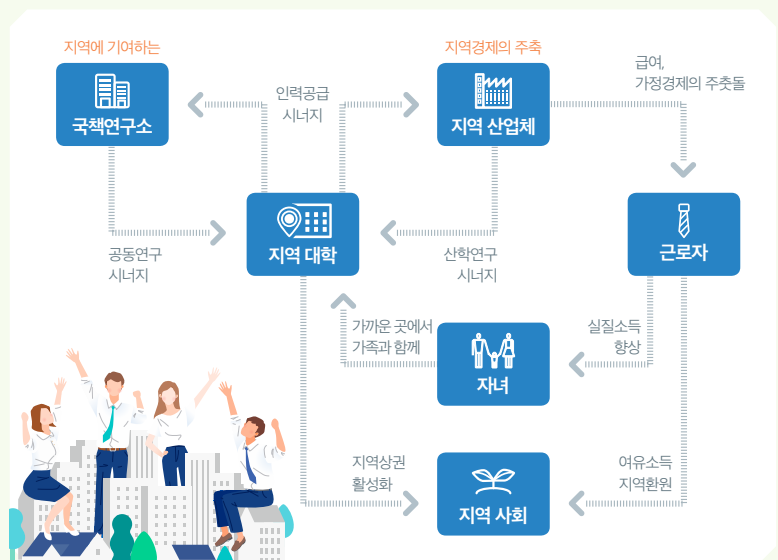
대학중심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OECD(2018)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득과 취업 기회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집중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도시 집중 현상의 원인으로 지역인재 유출과 혁신 일자리 이동을 주목한다. 실제로 매년 2만 명 정도의 비수도권출신 학생들이 상위 종합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이들의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에 취업한다. 더욱이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 일자리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대학에 진학한 젊은 층마저도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공동화 현상은 교육 및 일자리와 관련이 있으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매개로써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전략으로 지역혁신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플랫폼(University Platform)의 구축이다. 대학 플랫폼은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의 협업을 통해 대학별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발전, 국가 발전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혁신주체가 되는 대학들은 상호공조를 통한 연구를 활성화 하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특화 산업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교육체제 혁신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대학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 정부출연연구소로 구성된 지역혁신 플랫폼(Regional Innovation Platform)의 구축이다. 혁신의 주체인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점 해결,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정투자과 법제도개선을 통한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계를 통해 졸업생이 그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강력한 일자리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 등을 통한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의 연계 강화와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볼거리, 놀 거리, 먹고 마실거리가 복합적으로 어 루어진 공간을 조성하는 등 혁신인재 들이 원하는 정주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저하, 지역문화·복지 부족으로 인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은 지역대학의 위기뿐만 아니라 지역도시 자체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을 위한 협력, 나아가 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은 교육혁신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시민교육,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2. 대학은 R&BD 플랫폼으로서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동력을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대학은 사회공헌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며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기능을 다해야 한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 전략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대학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맞춤형 인재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을 순차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추진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줄이고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산적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중앙행정 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및 중소도시 이전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혁신도시에는 과학기술연구 기관이 부재한 곳이 많으며, 따라서 산·학·연 클러스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혁신도시에 정부출연연구소를 재배치 또는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구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고, 대학 플랫폼이 선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에 기반을 둔 일자리 생태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정책추진 관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선택하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주거, 교육, 문화와 같은 정주환경이 조성된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즉, 혁신도시는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지역의 자립적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산·학·연 연계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R&D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대학의 인력양성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지역의 자립을 위해 다음의 전략들을 제안할 수 있다.

1. 전국의 혁신도시에 정부출연연구소의 재배치와 신설로 연구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해야 한다.
2. 지역대학은 대학 플랫폼을 구축하고, 혁신 산·학·연 클러스터의 핵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지역발전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3. 지역 자립은 그 지역 주민의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과 생활 환경의 정주조건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인구사회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균형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중심의 지역혁신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으며, 분권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 간 연계 강화, 그리고 지역 주민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를 대표하는 석학단체로서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1,000여 명의 과학기술분야 석학들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회원이며, 각 회원의 지식과 역량을 결집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기반 조성, 우수한 과학기술인의 발굴 및 활용 그리고 정책자문 관련 사업과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



한림원의 목소리는,

과학기술분야 석학들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국가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과 정책적 대안 제시,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등을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림원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보기



홈페이지

www.kast.or.kr

블로그

kast.tistory.com

포스트

post.naver.com/kast1994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stnews

KAST 한국과학기술한림원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136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구미동)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Tel. 031.726.7900 Fax. 031.726.7909

